

제 83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항지 시모다(下田) 풍경

박동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시모다는 시즈오카현에 위치한다. 시모다는 항구도시이며 인구는 약 3 만이 거주한다. 관광지이며 온천지로도 인기가 높다. 에도시대 항로의 휴게소로써 번성하였으며, 개국의 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역사를 관광자원화한 지방으로 유명하다.

시모다의 개국 관련 주요 연표를 살펴보면, 1853 년 6 월 3 일, 페리가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였다. 1854 년 3 월 3 일, 요코하마에서 미일화친조약이 조인되었다. 개항지로는 시모다 하코다테가 선정되었으며, 시모다는 즉시 개항하였다. 3 월 25 일에는 시모다부교가 설치되었으며, 4 월 8 일에는 시모다부교경 일미교섭전권대사 이자와가 부임하였다. 5 월 22 일에 시모다조약이 드디어 타결되었으며, 5 월 25 일에 조약서 조인이 이루어졌다. 1859 년 5 월 2 일에 시모다 미영사관이 폐쇄되었으며, 12 월 8 일에 개국항으로써의 시모다항이 폐쇄되었다.

쿠로후네 마츠리의 탄생배경을 알아보면, 개국 50 주년 위령제가 1904 년에 열리게 되며, 1924 년에 미국 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같은해에 잡지 쿠로후네가 창간되며, 행정관청이 주도하여 개국 80 주년 기념 이벤트를 구상하였다. 결국 1934 년에 29,000 엔의 예산으로 제 1 회 쿠로후네 마츠리가 실시되었다.

쿠로후네 마츠리는 관이 주도하는 이벤트성 마츠리로써, 전통 마츠리와 대비가 되나,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1941 년부터 1946 년까지 5 년간 쿠로후네 마츠리가 중단된 적이 있다. 본 마츠리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라는 위상을 재확인할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시모다를 방문한다.

<Q&A>

Q. 시모다에 비엔날레 같은 전시관 등이 있는가?

A. 시모다에 역사자원이 많고, 박물관 등이 많다.

Q. 페리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였나?

A. 미국인과 네덜란드인,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모여, 몇번의 단계를 거쳐 통역하는 작업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곤 하였다.

Q.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서양세력과 맞서 싸운 적이 많은가?

A. 일본도 서양세력에 맞서 싸운 경험이 많다.

Q. 쿠로후네 마츠리에 대한 일본시민들의 반응이 우호적인 이유는?

A. 마츠리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취지도 있었으므로, 저항이 적었으며, 일반적으로 순종적인 문화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다.

Q. 강연자가 시모다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A. 일본지역연구의 대상으로써, 동경에서 가까운 곳이면서 농촌등과 같은 소규모의 마을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시즈오카현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시모다에 자주 놀러가면서 매력을 느껴 결정하였다.

Q. 시모다는 보수적인가?

A. 시모다는 개방적이며, 토착부자도 없다.

Q. 일본이 조선에 비해 일찍 개항에 성공한 원인은?

A. 역사는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는 무척 어렵다. 물론 명치시대의 좋은 시스템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